

2010년 재독한글학교교장협의회 교사연수

이화여자대학교 이준호

한국 문화 교수법

1. 언어 교육과 문화

사람은 이성으로써 문화 창조의 이상을 실현한다. 그리고 문화 창조의 능력을 높이는 말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이끈 말은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담는 그릇이고 그것들을 나르는 연장일 뿐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연장이다. 생각과 느낌은 도덕과 학문과 예술의 근본이며 그것이 바로 문화의 요소가 된다.

말과 문화는 한 민족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 낸 산물이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언어 교육에서 문화는 교육 내용으로서 또는 언어 교육의 도구로서 마땅히 활용되어야 한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보면, 언어와 문화가 상관관계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른을 공경하고 모시는 한국 사회의 풍습에 따라 한국어는 종결어미 화제가 체계화 되어 있고, 같은 의미의 명사도 존대법에 따라 몇 개의 어휘로 분화되기도 한다. 존대법은 언어 이외에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주어서 웃어른 앞에서 술과 담배를 할 때는 특별한 행동 양식을 취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제 2 언어 학습자에게 문화는 언어만큼이나 습득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문화는 교실 학습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범위가 넓어서 체계적인 학습과 사회생활 속에서의 자연 습득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 2 언어 학습자가 새 문화를 접하면 충격을 받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때 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면서 새 문화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의 학습 과정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학습자가 새 문화를 편안히 받아들여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고, 언어 습득의 배경 지식으로 삼아 학습에 도움을 주게 되는지, 혹은 이를 흡수하지 못하고 불안감이나 적대감으로 부정적이 되는지에 따라 언어 습득에 주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학습자가

상대 문화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꼭 학습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학습자의 태도는 목표어 습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언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을 내용에 포함시켜서 이문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편으로 삼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은 교수법의 변천과 관계가 깊다. 구조주의에 바탕을 둔 청각구두 교수법에서 언어 교육은 문화를 배제한 언어적 능력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근래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 문화는 사회공동체의 산물이며 사고의 기반은 이 공동체들 사이의 상호작용, 즉 대화로 얻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문화는 언어 사용 요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언어 교수에서 문화의 이해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대 언어 교수법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언어적인 능력 이외에 다음과 같은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즉 문화적 측면에서의 언어 능력은 단순히 기호 체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 공동체 안에서 화용론적으로 이루어지는 담화 요인들을 이해하고 그를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어휘와 구가 결합하여 문장이 됨을 아는 차원을 넘어서 직, 간접적인 화행,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 비언어적인 언어행위를 포함한다. 제스처와 같은 것 이외에 침묵, 신체 접촉, 상대와의 공간적인 개념, 비언어적인 소리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여기에 포함된다.¹

문화적 측면의 언어 능력이 위와 같다면 과연 그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존재하는 문화란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다음은 여러 학자들이 시도한 문화에 대한 정의이다.

□ Tylor(1871):

지식, 신념, 예술, 법률, 관습, 능력, 습관 등을 포함하는 총체

¹ Marianne Celce-Murcia(1995)는 의사소통 능력을 ①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②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③사회문화적 능력(Sociocultural competence) ④형식화의 능력(Formulaic competence) ⑤비언어적 능력(Paralinguistic competence) ⑥언어적 능력(Linguistic competence)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회문화적 능력과 형식화 능력, 비언어적 능력이 문화와 관계가 있는 능력임을 알 수 있다.

□ Kroeber and Klukhohn(1963) :

언어, 윤리, 제도, 삶의 방식, 생각의 체계, 규범, 인간의 생산품, 가치, 행동, 이상 ... 등의 총체로 문화

□ Brooks(1968) :

- Culture 1 - 생물학적인 성장 (biological growth)
- Culture 2 - 개인적인 교양 (personal refinement)
- Culture 3 - 문학과 예술 (literature and the fine arts)
- Culture 4 - 생활양식 (patterns for living)
- Culture 5 - 생활 방식의 총체 (the sum of a way of life)

□ Hendon(1980) : big C vs little C

- big C : 고급 문화의 성과 (형식적 제도, 역사적 인물, 문학, 예술, 건축 등)
- little C : 일상 중심의 문화 (주택, 의복, 음식, 교통 및 모든 행동양식)

□ 박영순(2002) : 문화의 유형

문화	정신문화	가치관. 민족성. 세계관. 종교 및 종교관. 사상		
	언어문화	문자. 형태. 통사. 의미. 경어법, 속담 및 은유, 문학		
	예술문화	대중예술	대중음악. 대중무용. 대중미술. 대중영화. 연극	
		고급예술	고급음악. 고급무용. 고급미술. 고급영화. 연극	
	생활문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여가생활		
	제도문화	정치제도. 법과 행정제도. 경제제도. 사회 언론제도. 교육제도		
	학문문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산업기술문화	농업. 임업. 수산업, 토목. 건축기술, 전자. 전기 기술, 기계. 조선 항공기술. 섬유. 제지. 출판 기술. 정보. 통신 매체 기술 화학. 생명 환경 산업. 서비스업		

이렇게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는 인간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외국어 교육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화의 다양한 모습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특히 문화라는 이름이 주는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전통 문화라든지 성취 문화, 고급 문화에만 치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학습자의 숙달도 등급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생활문화 수준의 교육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2. 문화교육의 목적 및 범주

1)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목표

문화교육은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언어 이해의 최우선 과제다. 한국어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이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인의 의식 구조가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 인간 관계만 해도 유교문화 바탕에 대가족 제도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졌음은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숙(1997)에 따르면 문화교육은 목표어와 자국어, 목표 문화와 자국 문화, 목표 사회와 자국에 대한 인식 등을 함께 다루는 상호작용으로 문화교육의 목표는 사실에 대한 기술이거나 분석적인 지식뿐 아니라 문화 유형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절차적인 지식과 관련되어 설정되어야 하며 결국 문화교육의 목표는 목표어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및 감정까지 포함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생각하는 방식 및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속한 세계관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언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효과는 학습자의 이해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문화교육의 목적으로 삼아 자료 개발과 교수 방법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자료는 한국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문화교육 체계와 교과 과정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사들, 특히 전문적 훈련을 받지 못한 많은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21 세기에 들어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물론 동남아 지역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도 한류의 열풍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연예나 오락물에 국한된 것이어서 자칫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조차 있다. 이로 인해 한국 문화의 지엽적인 일부가 전체인 양 인식되고 객관적이고 비교문화적인 면에서의 고차원 문화 형태가 잘못 인식될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러한 한류의 열풍이 한국어 및 한국 문화의 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적 호기심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어 숙련도를 고려한 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교 문화적이면서 생활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교육 자료는 한국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소개하며 한국에 대한 편견과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2)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범주

교육의 범주를 정하는 것은 곧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내용을 교육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문화교육의 범주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그것은 문화교육의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보았던 것처럼, 문화의 범위가 지극히 넓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렇지만 한국어 교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교육의 내용적 범주를 선정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문화교육 범주

- 첫째, 일상생활 양식과 관련된 문화요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 (문화적으로 범주화된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인사하기, 물건 사기, 감사 표하기, 사과하기 등의 행동양식)
- 둘째, 속담, 관용어, 문화적 지시어 등의 문화적 특질을 가지고 있는 언어적 요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생활환경과 방식, 역사적 경험, 세계관 등이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언어 그 자체의 의미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
- 셋째, 담화범주와 상황에 적절한 언어 형식을 갖추어 표현할 수 있도록 화법과 경어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넷째,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역사적 사건 및 기관, 지리학적 기념물 등의 정치 경제적 요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국

역사와 전통에 관한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어 교육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한국에 대한 이해)

• 다섯째,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교육

즉 문화의 전반을 다루되, 우선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가지는 생활문화적 항목에서 출발하여, 언어 문화적 항목,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과 한국의 예술 문화에 대한 순으로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교육기관에서의 문화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교육의 질적·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각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교육의 목표와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들이다.

□ 문화교육의 목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A	연세대 B	한양대
초 급	.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	. 최소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 간단한 사회활동	. 기본적인 일상 활동	. 일상 활동
중 급	.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신화, 전설, 명절, 풍습). . 관용어, 속담 사용 능력을 기른다.	. 한국문화에 접할 수 있게 한다. .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게 한다.	. 한국 속담, 관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쉬운 문학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전통문화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게 한다.	. 한국문화에 대한 세심한 이해를 통해 문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속담, 관용어를 배움으로써 한국적 사고에 익숙하게 한다.	. 관용어 교육, 문화의 중요성 설명, 한국의 관습과 문화를 포함하는 속담을 배운다.
고 급	.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글. . 한국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이해와 예술문화에 대한 이해	. 역사·문화에 확장된 지식을 갖는다. . 역사·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받게 한다.	. 고전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감상하고 표현할 수 있다. . 자국의 문화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힌다. . 한국문화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 한국의 전통, 관습, 사회적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다. . 한자어, 속담, 관용어 연습

◇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

의식주	문화명소	무형 문화재	사고방식
1 한식, 매운 음식, 인삼차, 오이김치, 비빔밥, 냉면, 불고기, 국	동대문시장, 남산, 종로, 남대문시장, 제주도, 부산, 여의도, 한강, 설악산, 63 빌딩, 이대	한글, 한국춤, 태권도, 동양화, 나룻배, 장기	한 잔 하려 갑시다.
2 삼계탕, 갈비, 떡국 한복 단독주택 무궁화호	국립박물관, 민속촌, 창경궁, 절, 대학로, 경주, 외 서울 시내 명칭 다수	명절(설날, 추석), 도자기, 탈춤, 붓글씨, 바둑	윗사람이 수저를 든 후에 들다. 존댓말, 공짜(담) 어머니 사랑, 한 톨 내다, 바둑아(이름 문화), 호랑이(상징성)
3 잡채, 김밥, 오징어, 비빔냉면, 미역국, 녹차, 순두부, 독방, 전세, 온돌방,	시청, 남산타워, 지리산, 고궁, 계룡산, 김포공항, 대한극장	대보름, 음력 정월 보름, 정철장(결혼 문화), 춘향전, 세배, 조선시대 회화, 맞춤법, 미풍양속, 사물놀이, 가야금, 풍악이, 한글	집사람(호칭), 잔칫상,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금강산도 식후경, 산에 가야 벌을 잡지요, 김장철, 이웃사촌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한국 문화교육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문화 수용단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곧 숙달도 수준에 맞춘 문화의 깊이가 반영되고 있지 않음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화교육의 목표와 범위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 요소가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목표 설정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 내용 선정도 다각화되어 있지 못함(문화 요소 선정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 교육 목표가 대체로 편협하고 문화의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음
- 교재의 제시 순서가 문법적 난이도와 완전히 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 항목 내에서 어떤 특별한 기준으로 순서를 갖고 제시된 것도 아니며, 더더욱 문화 습득 과정에 맞춘 것도 아님 (각 단원에서 제시되는 문화 요소와 언어 요소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 가치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고 의식주 문화만 강조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을 위하여 문화 항목의 체계적인 선정과 문화 학습의 순서와 배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보다 다각화된 측면의 한국 문화가 소개되고 학습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방안을 논할 때 필요한 접근법으로 다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개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이란 바로 ‘나와’는 다른 언어, 다른 문화적 코드, 그리고 다른 의사소통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문화간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방의 언어만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습득한 언어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같은 고맥락 문화에서는 사회문화적인 암시가 의사소통의 완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언어와 문화가 각각 분리되어 교육되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이러한 문화교육의 특성과 한국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1) 문화교육의 방향

첫째, 문화교육이 정보 전달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문화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지속적인 변화 과정으로 문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교실에서의 학습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학습 경험 자체에 중점을 주는 과정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언어 교육과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모델은 언어 사용을 문화적으로 인식, 이해 판단의 방법으로 보고 있으므로, 언어 안에서 문화교육 과정을 통하여 목표 문화 내에서의 언어·문화 숙달도를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하기 때문이다.

셋째, 초기 교육 단계에서부터 문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는 언어 숙달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후에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지만, 언어와 문화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 교육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습자를 목표 문화에 노출시켜야 하며 처음에는 일상생활 양식과 관련된 것에서 출발, 언어 능력이 신장됨에 따라 그 범위를 넓혀 지적, 문화적, 과학적 사실에 노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사진, 음성자료, 비디오 자료, 실물 등의 다양하고 실제적인 자료들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를 과장하거나 일부분을 빼거나 줄이지 말고 복잡한 문화의 다양성을 살려야 하며, 각각의 정보는 실제적이고 균형을 이루고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문화교육의 유형 및 전략

이와 같은 방향에 근거로 하여 문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과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문화교육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과 같은 기능별 교육과는 방법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교육을 교실내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가 실제로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들을 나열해 본 것이다.

□ 강의 : 강의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주의

- 간략하게 한다.
- 시각 자료, 실제물, 개인적인 경험 등을 통해 활발하게 한다.
- 특정 문화적 경험에 초점을 둔다.
- 목표 언어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follow-up(후행 활동) 기법을 사용한다.

□ 원어민 정보 제공자 : 학습자에 좋은 언어적 모델이며 목표 문화에 대해 최신 정보를 주는 좋은 자료 제공자

□ 녹음된 인터뷰 : 목표 문화에 대한 정보는 개인적인 시각이나 인식 뿐 아니라 모국어화장의 비격식적 인터뷰도 가능

□ 녹음된 대화 / 대화 관찰 : 자연스럽게 실제적인 언어로 이루어지는 비디오 녹화나 역할극 등

□ 문화 이해를 위한 읽기 자료 /실물 자료의 사용

- 모국어로 자문화에 대해 읽기
- 목표 문화의 시각으로 목표로 다른 현상에 대해 읽기
- 학생의 모국어로 쓰인 목표에 문화에 동일하게 있는 주제 읽기

□ 프로젝트 활동 : 프로젝트 학습은 체험 학습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체험 학습은 실제적인 목적을 갖는 활동을 이용한 학습으로 실제적인 언어를 가지고 언어의 4 가지 기술을 반영. 학습자 스스로 자율적 문화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있어,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해석 능력을 가진 자율적인 문화 소통자가 될 수 있음.

4. 결론

상기한 바와 같이 현대 언어 교수법에서는 언어적인 능력을,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 공동체 안에서 화용론적으로 이루어지는 담화 요인들을 이해하고 그를 활용하는 능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 어휘와 구가 결합해서 된 문장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담화 안에 녹아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를 기반으로 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다. 사회 문화적 능력 외에 상대와의 공간적인 개념, 신체 접촉, 비언어적인 소리, 심지어 침묵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까지도 언어적인 능력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대 한국어 교수법에서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담화 중심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데 이 담화에는 한국인의 문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화를 모르면 이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사물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인지 행위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경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국어 교육에서의 이해 과정은 개인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해석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자화된 읽기 텍스트는 모든 독자에게 같은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다. 독자는 주어진 텍스트에서 형태적, 통사적, 의미론적 체계를 단서로 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상호 작용을 거쳐서 지식 구조를 재편성하거나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는 객관화되고 규칙적이며 고정적인